

TOURISM SCOPE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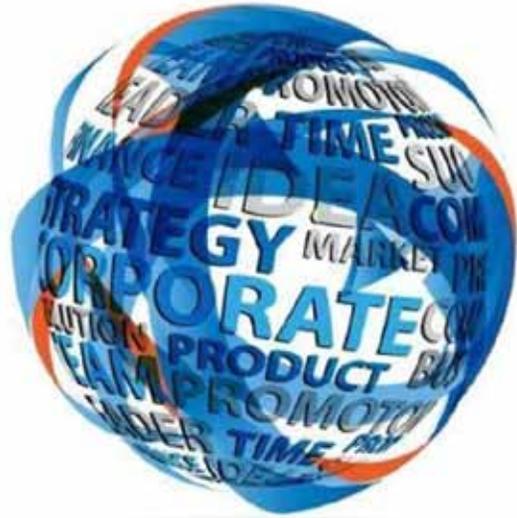
Volume 33
2015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Phoenix Sanya, Hainan Island, China



The 7th TPO General Assembly

27-31 May 2015 | In Sanya, CHINA

New Leap of TPO

263 million tourist arrivals in Asia Pacific Region!

It needs more powerful cooperation.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현재 75개 도시 정부와 37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CULTURE & TRAVEL 오래된 두 가지 풍경 군산
06	SPECIAL 천년의 도시 하노이 거리 탐구
12	CITY THEME TOUR 걸어서 세계문화유산과 만나다 물라카
16	CITY THEME TOUR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대구 시간 여행
22	TREND & ANALYSIS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 세계 6개 도시 쇼핑물 Shopping and the Cities
26	TPO INTERVIEW 저우 춘화 썬야 시 여유발전국 국장
28	TPO NEWS
30	FESTIVAL CALENDAR



오래된 두가지 풍경 군산

군산은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 도시다. 1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오래된 건축물엔 슬픔과 아픔이 고여 있다. 혹독한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일제 수탈 도시로의 여정. 태업을 감아 몇 십 년 전 풍경과 마주했다.



군산시 여행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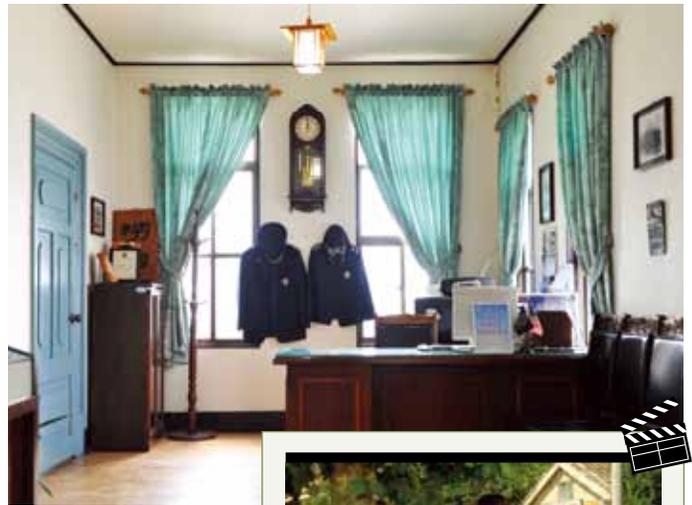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북서부 해안에 있는 시
면적	680.76km ²
인구	27만 8069명(2014년 기준)
기후	남부서해안형 기후로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온난 습윤하다. 연평균 기온은 12.℃, 연강수량은 1,201.4mm로, 1월 평균기온은 -0.4℃, 8월 평균기온은 25.7℃이다.
개요	군산시는 금강 하구와 만경강 하구로 둘러싸인 옥구반도와 고군산군도 등 황해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899년 군산항이 개항하면서 서해안 주요 항구 도시로 성장,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다.

◇◇◇◇◇◇◇◇
근대문화
역사거리 &
원도심

중세 유럽풍 건축 구 군산세관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여전히 굳건한 자태로 남아 있는 구 군산세관은 1990년대까지도 업무가 이루어지던 건물이다. 현재는 1993년에 지어진 바로 옆 신청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독일인이 설계한 이 건물은 벨기에산 붉은 벽돌 등 고급 수입 건축재를 사용해 유럽풍으로 지어졌다. 단단한 화강석으로 세운 주춧돌과 생선 비늘 같은 동판 지붕, 뾰족한 첨탑이 세월의 풍파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구 군산세관 및 군산항의 옛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전화 063-454-7870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초원사진관
영화 속 정원(한석규 분)이 운영하던 사진관. 외관부터 빛바랜 느낌이 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관을 찾던 제작진 눈에 카페였던 이 공간이 들어왔고, 주인공을 설득해 사진관으로 개조했다. '초원사진관'은 배우 한석규 씨가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사진관 이름을 딴 것. 촬영 후 초원 사진관은 사라졌지만 얼마 후, 군산시청에서 영화 속 모습으로 복원했다. 사진관 안엔 영화 속 장면들과 오래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2길 12-1 운영시간 09:00~18:00



군산 대표 작가의 작품 전시관 장미갤러리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광복 후에는 위락시설로 전락했던 건축물. 지금은 세계적인 화가인 허반영 작가의 예술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자리한다. 군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선생은 서당에서 수묵화를 그리면서 천재성을 드러냈고, 초등학교 때는 조선총독부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그 후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전 '르 살롱' 공모전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현재 90세가 넘는 그는 군산에 머무르며 서양화와 도예, 서예, 수묵화 등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적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32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체험프로그램 가격 초초 만들기 4000원, 천연염색가족브로치 5000원



작가들의 문화 창작 공간 여인숙

1960년대 지어져 2007년까지 '삼봉여인숙'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던 공간. 현재 이름인 여인숙(與隣熟)은 '여러 이웃이 모여 뜻을 이룬다'는 의미로 2010년에 문화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매년 시각예술 작가들을 선정해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층은 전시실로, 2층은 작가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3 전화 063-471-1993 운영시간 10:00~18:00

적산가옥의
변신

다다미방에서
느긋한 오후
미즈커피 구미즈상사

다시 미즈커피를 찾는다면, 별이 잘 들어오는 오후에 2층 다다미방에 머무를 것이다. 오래도록 그곳에 앉아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고 책을 읽다보면 시간도 느리게 흘러갈 것 같다. 1930년대 무역회사 건물로 세워졌는데 원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정면에 있던 걸 복원하면서 박물관 옆으로 옮긴 것. 미즈커피는 인테리어도 고풍스럽지만 차 맛도 훌륭하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다양한 수제차를 맛볼 수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해양로 232 전화 063-446-2867 운영시간 10:00~22:00
가격 직접 담근 차 5000원, 에이드&스쿼드 5000원



일본식 가옥에서 고즈넉한 하룻밤
고우당 게스트하우스

원도심을 걷다보며 그 중간쯤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 적산가옥이 몰려 있는 것. 2012년에 지어진 게스트하우스엔 작은 연못과 분수, 키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진 아담한 정원이 있다. 걸모습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다. 까슬까슬한 촉감의 다다미방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다다미방이지만 보일러를 설치해 겨울에도 춥지 않다. 저렴한 도미토리부터 가족 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넓은 객실까지, 6가지 타입의 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한편에는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커피 맛을 볼 수 있는 카페와 고은 시인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정종 주점 세노야가 있다.

주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6-6 전화 063-443-1042 가격 4만 원(주말, 2인실), 13만 원(2룸, 5인실) 홈페이지 www.gowoodang.com



몸에 좋은 전통차
청담차집

아담한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전통차집. 이 중 현관과 단아한 뒤뜰, 창에 나 있는 촘촘한 격자틀이 일본스럽다. 느린 도시에 어울릴 만한 한적한 카페를 열고 싶었다는 주인장. 카페가 아닌 '차집'이라는 이름답게 커피보다 전통차 한 잔이 어울리는 곳이다. 대추를 5~6시간 푹 고아 만든 대추차를 추천. 설탕이나 시럽 등을 일절 넣지 않았는데도 진한 달콤함이 몸속 깊숙이 퍼진다. 도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장은 이천에서 직접 가져온 찻잔에 차를 내고 판매하기도 한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6길 18 전화 063-445-1231 운영시간 10:00~18:00 가격 대추차 5000원, 유자차 4000원



◇◇◇◇◇
군산의
맛



따라오지 못할 맛 복성루

전국 4대 또는 5대 짬뽕으로 손꼽히는 중국집. 해물을 수북하게 올린 짬뽕은 비주얼에서 일단 합격. 싱싱한 홍합과 오징어, 조개에 돼지고기 고명이 그릇에 흘러내릴 정도로 담겨 있다. 국물은 얼큰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하다. 아쉬운 점이라면 푸짐한 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이 적은 것. 불맛이 나는 짜장면도 썩 괜찮다. 달달해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다.

주소 전북 군산시 월명로 382 전화 063-445-8412 운영시간 10:30~16:00, 일요일 휴무 가격 짬뽕 7000원, 볶음밥 7000원, 짜장면 5000원



든든한 아침 식사 한일옥

제사 음식으로 먹는 소고기탕국이 바로 이 집의 주 메뉴. 평범한 묵국 같지만 오랜 세월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다. 소고기 양지와 작꼭썰기한 무가 제법 푸짐하게 들어 있다. 여기에 반지르르 윤이 나는 쌀밥까지, 좋은 재료를 쓰는 게 확실하다. 그저 집밥을 짓는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 것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노하우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3길 63 전화 063-446-5502 운영시간 03:30~21:00 가격 묵국 6500원, 육회비빔밥 6500원



깊고 진한 국물맛 군산복집

주객이 전도되었다. 탕을 시키니 회가 나온다. 커다란 접시에 오징어 숙회와 싱싱한 굴, 제철 생선회가 그득 담겨 있다. 회를 배추에 싸 먹는 것도 특이하다. 차례로 나오는 반찬의 가짓수와 양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만다. 도톰한 살이 붙어 있는 아귀찜은 야들야들해 식감이 좋다. 아귀찜을 다 먹으면 밥을 볶아주는데 이 또한 별미. 마무리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복탕이 제격이다.

주소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5 전화 063-446-0118 운영시간 10:00~21:30, 월요일 휴무 가격 복탕 1만 5000원, 아귀탕 1만 5000원

우리나라 최초 빵집 이성당



1900년대 지금의 이성당이 있던 자리엔 '이즈모야'라는 제과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팥빵을 판 빵집이다. 광복이 되면서 이석우 씨가 '이(李)씨 성(姓)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이란 뜻의 이성당을 오픈했다. 야채빵과 쌀가루로 만든 단팥빵이 인기를 얻으면서 군산 맛집으로 등극했다. 얇은 빵에 팥소가 짝 찬 앙고빵은 달지 않아 자꾸 손이 가고, 야채빵은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 있어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다.

주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77 전화 063-445-2772 운영시간 07:30~22:30, 첫째·셋째 주 일요일 휴무 가격 앙고빵 1300원, 야채빵 1500원





천년의 도시 하노이

거리 탐구

실 새 없이 울리는 경적과 미로처럼 알기설기 이어진 거리, 그 사이를 비집고 진짜 베트남을 만났다. 뜨끈한 쌀국수로 배를 채우고, 진한 연유 맛의 베트남 커피를 마셨다. 별 좋은 오후엔 과거 프랑스의 흔적이 소인 찍힌 우표처럼 남아 있는 거리를 거닐었다.

하노이 여행 정보

위치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에 위치한 도시
면적	921km ²
인구	650만 명(2009년 기준)
기후	아열대 습윤 기후로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건조하다. 여름은 5월부터 9월까지이고, 겨울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개요	베트남의 수도이자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의 하노이는 1831년 구옌 왕조 때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됐다.

낮설지만 따스했던 하노이 라이프 4

경적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렸고,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스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이 거리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신기하고 따스한 풍경들, 이러한 낮설 덕분에 하노이 라이프에 끌릴 수밖에 없다.



01. 거리 위 목욕탕 의자들

버젓이 실내가 있는데도 그들은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국수를 먹는다. 사람들 대부분이 길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 행인과 오토바이를 구경하며, 누구보다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이 풍경의 하이라이트는 어둑해질 무렵의 구시가지 맥주거리다. 현지인들 틈에 외국인까지 어우러져 묘한 공감대가 형성된다. 적당한 온도를 품은 거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여행자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에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독 노란색 건물이 많은 것도, 건물들의 지붕이 뾰족하고 알록달록한 것도, 예쁜 베란다에 식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02. 이국적인 프랑스 흔적

베트남은 1882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프랑스에 대항해 베트남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호찌민이 이끌던 북베트남이 승리하면서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설립됐다. 하노이는 100년 가까이 프랑스와 함께했던 도시다. 성요셉 성당과 마주쳤을 때, 프랑스에 있는 건물 하나를 오려서 베트남 땅



03. 수천 가지 길거리 음식

베트남 음식은 길거리 음식의 천국인 태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 쌀국수는 기본, 코코넛 잎으로 감싼 찹쌀밥, 속이 말갭게 들여다보이는 스프링롤,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얹은 국수, 땅콩소스로 버무린 육포, 보들보들한 푸딩, 연유 뿌린 열대과일 등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거리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하루 세끼, 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1만 원이 넘지 않으니 대책 없이 살이 쪼을 수밖에 없다.



04. 도로를 달리는 꽃무더기

호린 날에도 베트남이 아름다운 것은 꽃 덕분이었다. 자전거 뒷자리에 실려 있는 꽃무더기를 볼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뻑뻑한 일상에서 꽃은 얼마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지. 베트남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꽃 한 송이의 낭만을 즐길 줄 안다.

생동감 넘치는
하노이를 만나다

36거리

‘구시가지’로도 불리는 36거리는 11세기 리 왕조가 왕궁에서 사용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장인들을 모으면서 형성됐다. 그래서 당시 만들었던 소금, 설탕, 목기, 은, 부채, 돛자리 등이 그대로 거리 이름이 됐다.



달콤한 과일 절임 오마이 찌러이 Ô Mai GIA LỢI

100년 전통의 절임 과일 전문점. 식재료를 최대한 잘게 칼집을 내는 것이 이 집 맛의 비결이다. 설탕과 생강 등의 향신료를 넣어 절임 과일은 일주일 정도 후면 먹을 수 있다. 키위와 매실, 생강, 자두 등 100여 종의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데, 달달함은 물론 향신료에 따라 맵거나 신맛이 나기도 한다. 100년 이상 된 저울과 병에 담긴 다양한 과일 절임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주소 8 Hàng Dương, Hà Nội 전화 +84-4-3928-0737 운영시간 07:30~22:00(아시장 개장 시 23:00까지) 가격 6만~8만 동(1400g)



사진 같은 그림
포트레이트 페인팅 Portrait Painting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별하기 힘든 근사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방. 50여 년 동안 오직 그림만 그렸다는 작가가 터득한 기법은 단순하면서도 신기하다. 도구는 붓이 아닌 젓가락과 이쑤시개. 물감도 재를 태운 그을음이다. 이 도구들로 사진과 흡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대략 3일이 걸리며 벨스 만델라와 타이거 우즈 등에게 초상화를 의뢰받기도 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메일로 사진을 보내 주문할 수도 있다.

주소 47 Hàng Ngang, Hà Nội 전화 +84-4-3926-0364 가격 200만 동부터 이메일 nguyebaoguyen@hn.vnn.vn

아날로그 아이템 폭 라이 Phúc Lợi

감성 가득한 기념품을 선물하고 싶다면 수제 도장이 어떨까. 향팻은 ‘도장거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솜이 즐비하다. 그중 2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폭 라이는 4대째 목도장을 만들고 있다. 이미 모양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골라 이름이나 메일 주소, 쓰고 싶은 글자를 추가하면 10분 안에 완성. 준비해간 도안이나 가게에 있는 도안으로 모양을 새기고 싶다면 하루 정도 소요된다. 까슬까슬한 나무 촉감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도장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주소 6 Hàng Quạt, Hà Nội 전화 +84-4-3824-5171 운영시간 08:00~19:30 가격 3~25달러





소수민족 전통 아이템 사파숍 Sapa Shop

가게에 들어서면 알록달록한 소품들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소수민족이 즐겨 쓰는 다양한 아이템이 가득하다. 베트남 전통 옷인 아오자이와 독특한 무늬의 넥타이, 앙증맞은 인형, 개성 강한 팔찌 등이 모두 손으로 만든 것들로 가격이 저렴해 단체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다.

주소 92 Hàng Gai, Hà Nội 전화 +84-4-3938-0058 운영시간 08:00~21:00



고급스러운 실크 숄 카이실크 khaisilk

베트남 대표 실크 숄.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이 고급스럽다. 스카프부터 넥타이, 아오자이까지 질 좋은 실크 원단을 사용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은 가격도 부담 없는, 부들부들한 남자 속옷이다.

주소 113 Hàng Gai, Hà Nội 전화 +84-4-3928-9883 운영시간 09:30~20:00

흥겹고 자유분방한 퍼브 헤이 HAY

맥주통으로 만든 독특한 테이블이 눈에 띄는 곳. 특히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퍼브로 분위기가 자유분방하다.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뮤직스테이션에서 밴드들의 작은 공연이 열려 흥이 최고조에 이른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주소 12 Tạ Hiện, Hoàn Kiếm, Hà Nội 전화 +84-904-028484 운영시간 04:00~24:00 가격 알래스카 패션 8만 5000동, 알래스카 아이스티 8만 5000동



하노이 최초의 재래시장 동쑤안 시장 Chợ Đồng Xuân

한국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한 재래시장. 하노이 최초의 시장으로 199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1층엔 거대한 분수와 식료품 상점들이 즐지어 있고 2층엔 의류와 원단 가게들이 있다. 길이 좁고 도매점이 많아 여유롭게 구경하기 쉽지 않다.

주소 Đồng Xuân, Hoàn Kiếm, Hà Nội 전화 +84-4-3828-2170 운영시간 06:00~18:00





**빈티지한 소품이 가득한
공 카페** Cộng cà phê

성요셉 성당 앞,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카페. 복잡한 1층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면 의외로 감성적인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직후 1970년대풍의 소품들로 꾸며냈는데 하나하나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연유를 넣은 베트남 커피가 특히 맛있다.



주소 27 Nhà thờ, Hà Nội **운영시간** 09:30~23:00 **가격** 커피 3만 5000동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 성요셉 성당 Nhà thờ chính tòa Hà Nội

식당과 기념품 숍이 꼬르르 이어진 길 끝에 우뚝 솟아 있는 고딕풍 성당.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898년에 완공되었고, 1912년 2개의 첨탑이 추가되어 더욱 웅장해졌다. 외관은 세월의 때를 탄 듯 거뭇하지만 실내는 하얀 벽에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 화려함이 돋보인다. 시간을 잘 맞춰 가면 미사도 볼 수 있다.

주소 40 Nhà Chung, Hàng Trống, Hoàn Kiếm, Hà Nội **미사 시간** 평일 05:30, 18:30 **토요일** 18:00 **일요일** 05:00, 07:00, 09:00, 11:00(프랑스어), 16:00, 18:00, 20:00



**현지인도 인정하는 쌀국수 맛집
포 텐** PHO 10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서는 식당. 국물이 담백하고 향신료 맛이 강하지 않아 우리 입맛에도 딱이다. 소뼈를 오랫동안 곤 국물이 맛의 비결. 튀긴 밀가루 빵을 국물에 찍어 먹으면 더욱 든든하다. 취향에 따라 라임과 고추 등을 곁들인다.

주소 10 Lý Quốc Sư Hoàn Kiếm, Hà Nội **전화** +84-4-3825-7338 **운영시간** 06:00~14:00, 17:30~22:00 **가격** 소고기 쌀국수 4만 5000동

야시장 거리

항가이 거리에서 동쑤안 시장에 이르는 1.2km 거리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시장이 열린다. 옷과 신발, 소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이곳에선 주전부리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시지 구이나 팝콘, 튀오리 감자 등을 맛볼 수 있다. 인기 메뉴는 떡볶이와 김밥. 튀김옷을 입혀 튀긴 바삭한 김밥이 별미다. **운영시간** 19:00~22:00



옛 프랑스 흔적이
스며 있는 거리

호안끼엠 호수 & 프렌치 쿼터

호수를 중심으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트렌디한 카페와 프랑스식 건축물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식민지 건축의 특징인 클로니얼 양식으로 지어진 집들을 볼 수 있다.



하노이의 유유자적인 풍경 호안끼엠 호수 Hoan Kiem

둘레 2km에 이르는 작은 호수.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가 놓여 있어 여유가 느껴진다. 새벽엔 운동하는 사람, 낯선 여행자, 밤엔 데이트족들이 모여든다. 하얀 아이자이를 입은 신부와 신랑이 웨딩 촬영지로 즐겨 찾는다. 밤이면 응옥썬 사당과 다리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물든다.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는 응옥썬 사당 Đền Ngọc Sơn

15세기 명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부였던 레로이가 호안끼엠 호수에서 건져낸 칼로 군대를 물리치고 레 왕조를 세웠다. 그 후 레로이가 호수에 제례를 올렸는데, 호수에서 거북이 칼을 가지고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한다. 거북이 검은 환수해 호수의 이름이 환검호(호안끼엠)가 되었다. 사당 안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대형 거북을 박제해 보존하고 있다.

주소 Đinh Tiên Hoàng, Hàng Trống, Hoàn Kiếm, Hà Nội 운영시간 여름 07:00~18:00, 겨울 07:30~17:30 입장료 2만 동

미로 같은 서점

혜우썬타앵뚜 Hiệu sách Thanh Tú

장띠엔 거리에서 가장 이색적인 공간을 꼽으라면 단연 이 건물이다.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서점으로 좁은 통로에 책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 마치 헌책방에 온 듯한 기분이다. 그중 한 서점인 혜우썬타앵뚜는 유아 서적과 소설, 영어 문제집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

주소 5 Đinh Lễ, Tràng Tiền, Hoàn Kiếm, Hà Nội 전화 +84-4-3936-1055 운영시간 09:00~21:00



웅장하고 단아한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지은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본떠 만든 곳. 노란색의 화려한 건물로 내부는 더욱 휘황찬란하다. 평소엔 안을 볼 수 없지만 공연이 열리는 주말엔 살짝 들어가 볼 수 있다. 밤엔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로 옆에 있는 로컬 커피 전문점 '하일랜드 커피'에 앉아 오페라하우스를 바라보며 차 한잔 즐기기가 좋다.

주소 1 Trang Tien St, Hanoi 전화 +84-4-3933-0113 홈페이지 www.vietnamonline.com/attraction/hanoi-opera-house.html

걸어서 세계문화유산과 만나다

몰라카

말레이시아 13개 연방주 중 하나인 몰라카 주는 순수 말레이 토착 문화와 중국 문화, 서구 세력의 지배를 통해 유입된 유럽 문화가 혼재된 도시다. 덕분에 몰라카 시티 전체가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전 세계 많은 여행자가 찾고 있다.



몰라카 여행 정보

위치	말레이 반도의 남서부, 몰라카 해협에 면한 항구 도시.
면적	330km ²
인구	45만 5300명(2007년 기준)
기후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형 기후로 연평균 기온 27℃, 연평균 강수량 2410mm다. 날씨도 덥고 비도 자주 내리기 때문에 우기(10~2월)에는 되도록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개요	몰라카 주의 주도로, 몰라카 강 어귀에 위치해 있다. 14세기 수마트라 섬에서 온 파라메스바라가 이슬람 왕국을 건설,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영을 누렸다. 1511년 포르투갈이 왕국을 멸망시켰고, 1641년 네덜란드가 빼앗아 해협을 지배, 1824년 영국 소유가 되기도 했다.

믈라카 여행의 하이라이트
세계문화유산 답사 도보 코스

믈라카는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1650km²로, 믈라카 타운 시내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다. 제주 올레길이나 산티아고 처럼 정해진 코스가 따로 없다. 쉬엄쉬엄 걸으며 믈라카 구석구석에 숨은 재미를 찾으면 된다.

낭만이 샘솟는 물길 믈라카강 Melaka River

시간이 멈춘 도시, 믈라카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강. 분위기가 있는 카페와 고풍스러운 가옥이 즐비한 캄퐁홀루 (Kampung Hulu) 거리와 캄퐁판타이 (Kampung Pantai) 거리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백미 중의 백미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만, 믈라카 강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크루즈에 오르는 것. 특히 전통 가옥과 벽화, 노천카페가 뿜어내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믈라카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인다.



믈라카의 역사
세인트폴 교회 & 파모사 요새

St. Paul's Church & A Pamosa

세인트폴 교회는 믈라카에서 가장 높은 곳인 세인트폴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애초 포르투갈 선장이 세운 교회였지만, 추후 네덜란드인들이 지배하면서 귀족들의 묘소로 변모했다. 특히 이곳에 서면 가깝게는 믈라카 시내가, 멀리는 믈라카 해협이 한눈에 들어온다. 언덕 뒤쪽으로 내려오면 16세기 초반에 포르투갈군 요새로 쓰인 파모사 요새와 연결된다. 이곳 역시 네덜란드가 침략하면서 심하게 파손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주소 Jalan Kota, 75000 Melaka

믈라카의 중심
네덜란드 광장 Dutch Square



믈라카 관광이 시작되는 곳. 광장 중앙엔 이국적인 분수가 자리하고 주위엔 크라이스트 교회를 비롯한 오래된 건물과 벵룩시장이 둘러싸고 있다. 믈라카의 중심답게 인력거 기사와 각종 좌판이 복잡하게 늘어서 있고, 유동 인구도 많다. 눈여겨볼 점은 길 건너 자리한 여행 안내소. 믈라카의 골목은 의외로 복잡해 이곳에서 관광지도를 챙기는 것이 좋다. 또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믈라카 무료 역사 투어(영어 가이드)가 진행되니 알아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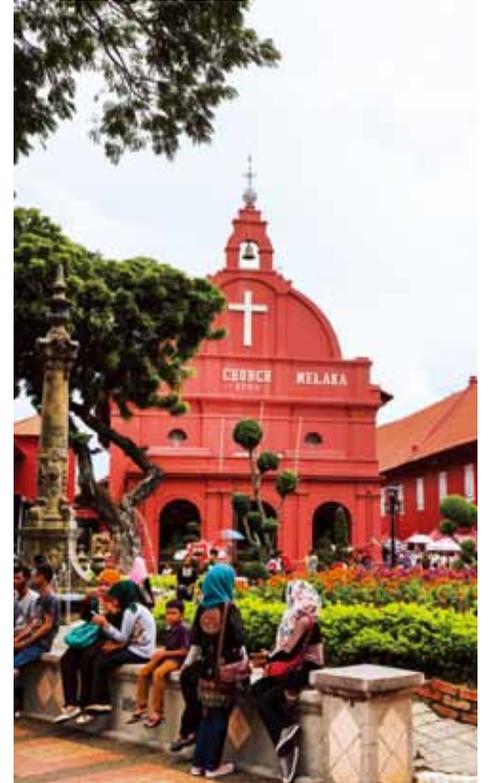




붉은 교회 크라이스트 교회 Christ Church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광장 한쪽에 세워진 교회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특유의 붉은색 건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인상적이다. 뾰족한 첨탑과 둥근 아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덜란드식 건축양식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성가대 뒤쪽, 200년이 넘는 타일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찾아가는 법 네덜란드 광장에서 도보 1분 주소 Bandar Hilir, 75000 Melaka



복적복적 야시장 존커 거리 Jonker Street

멜라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항제بات 거리(Jalan Hang Jebat)로도 불린다. 낮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여행자로 활기차고, 밤이 되면 또 야시장이 열려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특히 아기자기한 전통 기념품과 먹을거리 상점 등이 지나는 여행자를 유혹한다. 주말이 되면 이 일대가 더욱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므로 소매치기와 날치기에 유의해야 한다.



야시장이 문을 열기 전에는 주변의 수준 높은 갤러리와 군데

군데 숨은 사원 등을 둘러볼 것. 멜라카가 품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네덜란드 광장에서 도보 3분 주소 Jalan Hang 75200 Jebat



멜라카강가에 있는 집

카사 델 리오 멜라카 Casa del Rio Melaka

멜라카에 있는 5성급 부티크 호텔. 카사 델 리오란 스페인어로 '강가에 있는 집'이란 뜻으로 멜라카 강변에 있는 이곳과 딱 들어맞는 이름이다. 66개의 객실 모두 멜라카 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해 멋진 풍광을 선사한다. 1층에 자리한 메인 레스토랑, 더 리버 그릴(The River Grill)에서는 수준 높은 말레이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야외 수영장에서는 멜라카 강을 내려다보며 선뜰을 즐길 수 있다. 에어컨 시설이 그리 좋지 않은 멜라카에서 땀땀한 에어컨 바람을 제공한다는 것도 매력적. 무더운 멜라카 관광에 오아시스 같은 호텔이다.

주소 88, Jalan Laksamana 1, 75200 Melaka 전화 60-6-289-6888 운영 시간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2:00 홈페이지 www.casadelriemelaka.com



대항해 시대 흔적 해양박물관 Maritime Museum

타워 건너편에 정박한 멋들어진 범선 한 척. 몰라카 왕국에서 약탈한 보물과 함께 바다에 침몰한 포르투갈 범선 ‘플로라 데 라 마르(Flora de la Mar)’를 그대로 복원해 만든 해양박물관이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범선에 실린 보물과 몰라카 해양 역사, 세계 각국의 배 모형, 지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더운 바깥 날씨에 비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아 도보 여행 중 쉬어가는 코스로도 적당하다.

전화 60-6-282-6526 운영시간 월~목요일 09:00~17:00, 금~일요일 09:00~20:30 입장료 성인 6링깃, 어린이 2링깃



소박하지만 고고한 위상 몰라카 술탄 궁전 Melaka Sultanate Palace

‘술탄’은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다. 15세기 몰라카 왕족이 살던 이곳은 목조로 지어져 화려하기보다 소박한 느낌이 먼저 든다. 전통 말레이시아 건축 방식으로 지어져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잇는 방식을 사용했다. 내부는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하며, 다시 술탄 시대의 역사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마네킹을 설치해놓거나 몰라카 문화에 대한 사진, 그림 같은 전시물이 가득하다.

전화 60-6-282-7464 운영시간 09:00~17:30 입장료 성인 2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1링깃 홈페이지 www.perzlim.gov.my

몰라카는 박물관의 천국

바바논야 유물박물관, 국민박물관, 해군박물관, 해양박물관, 우표박물관 등 몰라카에는 수많은 박물관이 밀집해 있다. 박물관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여행자의 취향에 맞게 골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만 이 모두를 하나로 통합한 박물관 티켓이 없는 건 조금 아쉽다.



몰라카 최고 타워 전망대 타밍 사리 타워 Taming Sari Tower

멀리서 봤을 때 탑이거나 놀이기구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다. 높이 80m(탑 전체 높이 110m), 탑승 최대 인원 77명, 탑승 시간 7분. 몰라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타워에서 몰라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다.

전화 60-6-288-1100 운영시간 10:00~22:00 입장료 성인 20링깃, 어린이 10링깃 홈페이지 www.menaratamingsari.com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대구 시간 여행

사랑하는 이와 보폭을 맞추며 걸던 옛 거리,
촌스러워서 더 아름다운 음악다방, 고단했던
역사가 켜켜이 스며든 근대건축, 푸근한
정과 먹을거리가 넘치는 재래시장. 아련한
옛 기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도시,
대구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대구시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상북도 남부 중앙에 위치한 광역시
면적	884.46km ²
인구	252만 9285명(2011년 기준)
기후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큰 대륙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3.7℃, 연평균 강수량 1,000mm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름이 가장 더운 곳으로, 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이 평균 55.5일이다.
개요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 동쪽 금호강 연안에 위치한 대구는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도시 중 하나다. 섬유 산업 중심의 공업 도시이자 사과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추억의 거리를 거닐다

김광석길

방천시장 옆 신천대로 독길에 새겨진 그림 벽화. 대구 대봉동 출신의 가수 김광석을 테마로 350m 거리에 작가 30여 명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했다.



두 동창생의 핸드메이드 공방 살롱 Salon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패브릭 액세서리 공방. 고등학교 동창인 박경희 작가와 캘리그래퍼 황정숙 씨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3평(9.91m²) 남짓한 작은 공간에 박경희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패션 소품과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황정숙 작가의 캘리그래피 작품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손수 한 땀 한 땀 만든 모헤어 클러치백을 비롯해 헤링본 숄더백, 캔버스백, 쇼퍼백 등 여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트렌디한 가방을 만날 수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대봉동 5-5 전화 010-2412-8380 운영시간 11:00~18:00 가격 클러치백 3만 원부터, 숄더백 6만 원부터 홈페이지 blog.naver.com/pekin1313



물감같이 예쁜 마카롱 마카롱 굽는 화가

이동원 화가의 작업실 겸 카페. 이곳의 대표 메뉴인 마카롱은 바닐라, 초콜릿, 딸기, 멜론, 망고, 파인애플, 블루베리, 녹차 등 총 10가지. 화가가 만든 마카롱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물감을 섞은 듯한 오묘한 색깔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곱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시중에 파는 마카롱보다 사이즈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소 대구시 중구 대봉동 9-3 전화 010-8257-0454 운영시간 12:00~19:00 가격 마카롱 1개당 2000원, 핸드드립 커피 4000원

예술이 스며든 재래시장 방천시장

컬러풀하게 단장한 시장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구 3대 전통 시장, 방천시장의 이런 변화는 2009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쇠락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이 원동력이 됐다. 현재 방천시장 안에는 60여 개의 점포가 있다. 그중 '방천찌짐집'은 꼭 둘러봐야 할 맛집. 배추 잎 두 장을 넓적하게 펴서 부친 배추전은 심심한 듯한데,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



느릿느릿 시간이 멈춘 골목 진골목



중앙시네마 옆길로 새면 100m 남짓한 골목길이 나온다. '진'은 경상도 사투리로 '길다'를 뜻하는 '질다'에서 유래, '긴 골목'을 의미한다. 좁고 허름한 길이지만, 예부터 대구 유지들이 모여 살던 '부자 동네'로 통했다. 대구 최고의 부자였던 서병국 씨와 그의 친인척이 모여 살던 달성 서씨의 집성촌이었다. 1945년 광복 직후 달성 서씨가 떠난 자리에 요정이 들어섰고, 코오롱 창업자 이원만, 금복주 창업자 김홍식 등이 살던 대저택이 쪼개져 팔리면서 식당과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났다.



노신사들의 스타벅스 미도다방

진골목을 찾는 어른들은 십중팔구 이곳으로 향한다. '만인의 연인'이라 불리는 정인숙 여사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는다. 옛날식 난로와 폭신한 갈색 소파가 놓여 있고 종절모를 쓴 백발의 노신사들이 다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한때 하루 2000명이 다녀갈 만큼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3



번이나 다녀갔다고. 30년이 지난 옛날 다방은 여전히 정이 차고 넘친다. 차 한 잔을 주문해도 추억의 샌베이 과자와 웨하스를 듬뿍 담아 내준다.

주소 대구시 중구 종로2가 66-1 전화 053-252-9999 운영시간 09:00~22:00 가격 커피 2000원, 빵화차 3500원, 약차 3000원



추억이 흐르는 음악다방 세라비 C'est la vie

1970~80년대 대학가에 즐비했던 음악다방. 과거의 향수를 자극할 추억 속 장소가 대구에 존재한다. 한류스타 장근석과 소



녀시대 윤아 주연의 드라마 <사랑비> 세트장이 실제 다방으로 탄생한 것. 1000장이 넘는 레코드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신청곡은 비틀스와 아바, 이문세 노래다. 그 시절 다방 문화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기 좋다. 계산당맞은편 건물 2층에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 244 2층 전화 053-255-8308 운영시간 10:00~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입장료 5000원 (음료 포함)





대구 최초의 서양식 주택 대구화교협회

정소아과의원 뒤편에 있는 대구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 원래 대구 최고의 부호인 서병국의 주택으로 중국 건축가 모문금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데, 붉은 벽돌 장식이 운치 있다. 화교협회 옆에는 화교소학교와 장개석 총통의 흉상이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남일동 142



**코오롱 창업주 생가의 변신
공감 한옥 게스트하우스**

1950년대에 지어진 한옥을 개보수한 게스트하우스. 안채와 대문채를 갖춘 'ㄱ'자형 한옥으로, 온돌방과 침대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토스트와 삶은 계란 등 간단한 조식이 제공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새터민 지원에 쓰인다.

주소 대구시 중구 종로2가 66-4 전화 070-8915-8991~2 가격 온돌방 5만 5000원~11만 원, 침대방 1인당 2만 7000원



**확 달라진
북성로**

철물상이 모여 있는 오래된 공구 골목, 북성로에 예쁘장한 카페와 문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더스타일 한옥&스파

1960년대 지은 한옥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어 한가로이 수영을 즐기기 좋고, 겨울에는 한방 노천탕에서 피로를 풀 수 있다. 더스타일 게스트하우스의 분점으로, 온돌방과 침대방 등 7개 객실로 이뤄져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북내동 4-1 전화 053-214-6116 가격 2인 온돌방 · 2인 침대방 평일 6만 원, 주말 7만 원, 여성 전용 도미토리 · 혼합 도미토리(4인실) 평일 3만 원, 주말 3만 5000원 홈페이지 cafe.naver.com/thestyleguesthouse



카페 삼덕상회

1920년대 일본 적산가옥을 리노베이션한 카페. 실제 일본인들이 거주한 기간은 40년 정도로, 이후 한국인들이 고치며 산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띈다. 메주를 말리기 위해 천장에 구멍을 낸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백두산에서 벌목한 나무 뼈대를 그대로 살리고, 1층 안방은 카페 주방으로, 2층 다다미방은 세미나실로 바꾸었다. 카페 벽면을 활용해 매달 전시가 열린다.

주소 대구시 중구 북성로2가 49-2 전화 053-427-3332 운영 시간 11:00~22:00 가격 공구볼펜 5000원, 삼덕's 카푸치노 5000원, 베이글 러스크 3800원, 달콤 허니 브레드 5500원



세월의 흔적 근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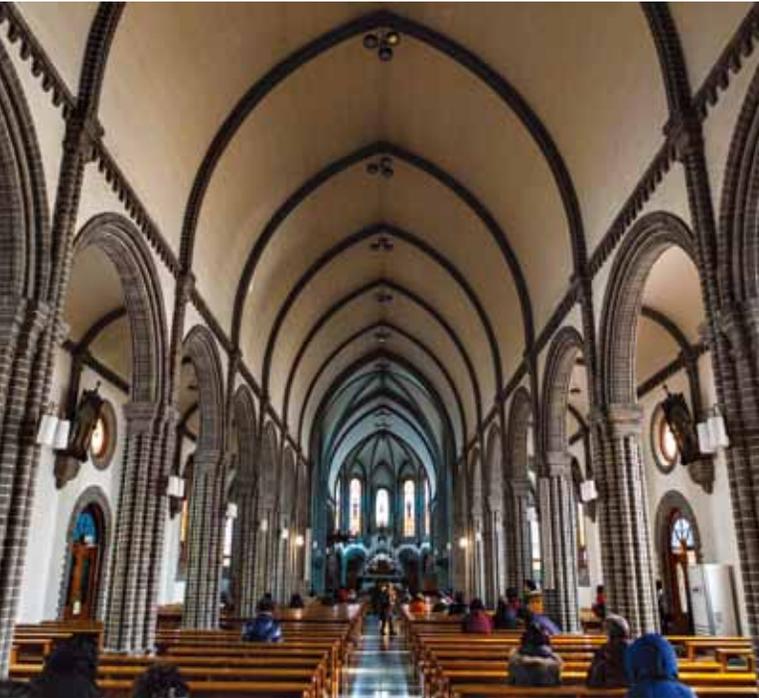
100년은 기본이다. 골목골목
자리한 근대건축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대구 골목 투어, 이렇게 하자!

대구 중구청이 운영하는 '근대로의 여형 골목 투어' 5개 코스를 돌면 대구의 구성구석을 살필 수 있다.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 길'은 경상감영공원을 시작으로 대구근대역사관, 향촌문화관 등을 둘러보고,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은 동산청라언덕의 선교사 주택을 시작으로 3·1만세 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서상돈 고택, 제일교회, 진골목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제3코스 '패션한방길'은 주얼리 타운, 약령시, 서문시장으로 이어지고, 제4코스 '삼덕봉산문화길'은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김광석길(방천시장) 등을 볼 수 있다. 제5코스 '남산100년향수 길'은 반월당을 시작으로 성유스티노신학교, 성모당 등으로 이어진다.

문의 053-661-2194(중구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gu.jung.daegu.kr/alley



영남 최초의 고딕 양식 건축물 계산성당

우리나라 3대 성당 중 하나. 1902년에 들어선 계산성당은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혼식을 올려 유명해졌다. 1984년 5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기도 했다. 좌우에 우뚝 서 있는 붉은 첨탑과 전면을 장식한 장미꽃 문양의 창이 인상적인데, 간결한 고딕 양식의 진수를 보여준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아치형 천장과 굵은 기둥이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복 차림의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담은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미사 시간에는 내부 출입을 금한다.

주소 대구시 중구 계산동 2가 71-1 전화 053-254-2300
홈페이지 www.kyesan.org



근대화의 상징물 대구제일교회

마치 경쟁을 하듯 계산성당과 마주 보고 있는 경북 지방 최초의 기독교회. 뾰족 솟은 쌍첨탑과 회색 화강석 외벽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 건축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걸어서 10분 거리, 약전골목에 있는 구 예배당도 꼭 둘러보자. 1933년 완공된 구 예배당은 적벽돌조 고딕 건축물로 사료적 가치가 높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됐다. 현재 선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소 신관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 구 예배당 대구시 중구 남성로 23 전화 053-253-2615 홈페이지 www.firstch.org

대구의 과거를 말하다 대구박물관·향촌문화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 모아놓은 이색적인 역사박물관. 1~2층은 1950년대 향촌통의 모습을 재현한 '향촌문화관', 3~4층은 대구 문학을 재조명하는 '대구박물관', 지하 1층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감상실 '녹향'이 자리해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49 전화 053-661-2231 운영시간 11~3월 09:00~18:00, 4~10월 09:00~19:00, 월요일 휴관, 해설 안내 11:00~12:00, 14:00~15:00





**푸른 잔디 위
그림 같은 집
선교사 블레어 주택**

청라언덕에 있는 3개 선교사 주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세웠고, 그 위에 미국식 붉은 벽돌을 쌓았다. 1층엔 거실과 응접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침실, 부엌 등이 있고, 2층엔 침실과 욕실이 있다. 선교사 블레어와 라이스가 사용하던 주택을 동산의료재단에서 인수, 현재는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운영한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 424 전화 053-250-7100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2:00, 13:00~17:00, 토요일 10:00~12: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dsmc.or.kr



미국 주거 양식을 엿보다 선교사 챔니스 주택

붉은 벽돌을 쌓고 박공지붕을 얹어 만든 직사각형 구조의 2층집. 계성학교 2대 교장 레이너(Reiner), 챔니스(Chamness), 사우텔(Sawtell) 등 1910년대 대구를 찾은 미국 선교사들이 살았고,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동산병원 의료원장인 하워드 마펫(Howard F. Moffet)이 거주했다. 현재 의료선교박물관으로 사용, 1층에는 당시 사용한 의료 기구가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마펫 선교사가 생활하던 침실을 그대로 꾸며놓아 미국 주거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 424 전화 053-250-7100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2:00, 13:00~17:00, 토요일 10:00~12: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dsmc.or.kr



민족 시인의 소박한 집 이상화 고택

하늘 높이 솟은 주상복합아파트 아래 자리한 앉은뱅이 고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항일문학가 이상화 시인이 1939년부터 작고한 1943년까지 살던 집이다. 그의 마지막 작품 ‘서러운 해조’가 탄생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본채와 사랑채로 나뉜 ‘ㄱ’자 한옥으로, 마당에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심어져 있다. 장독대와 재래식 작두펀프가 소박하고 정갈했던 그의 삶을 보여준다.

주소 대구시 중구 계산동27가 84 전화 053-256-3762 운영시간 10:00~17:3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sanhw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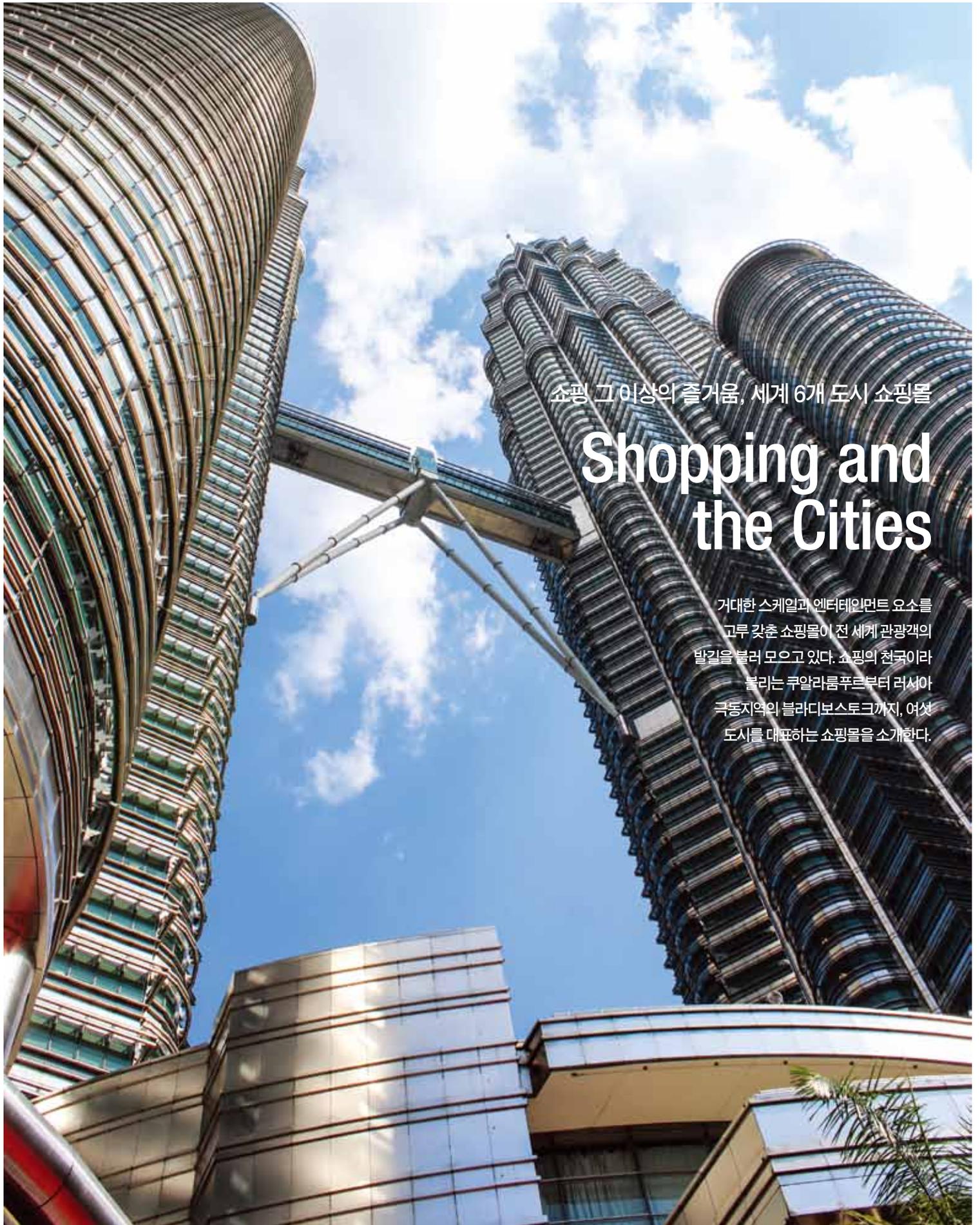


동서양이 혼합된 퓨전 가옥 선교사 스위트 주택

18년간 교육 선교에 헌신한 스위트 선교사가 1910년경에 지은 서양식 건물. 한옥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와지붕을 얹었고, 대구 읍성을 철거할 때 나온 성돌로 기초석을 세웠다. 현재 선교박물관으로 사용,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쓰였던 등잔과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입한 성경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전화 053-250-7100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2:00, 13:00~17:00, 토요일 10:00~12: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dsmc.or.kr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 세계 6개 도시 쇼핑몰

Shopping and the Cities

거대한 스케일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고루 갖춘 쇼핑몰이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쇼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쿠알라룸푸르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섯
도시를 대표하는 쇼핑몰을 소개한다.

방콕의 쇼핑 메카

시암스퀘어 방콕 태국

방콕 최대의 쇼핑지. 명동의 두 배가 넘는 규모부터 남다르다. 방콕의 3대 쇼핑몰인 시암센터(Siam Center), 시암파라곤(Siam Paragon), 센트럴월드(Central World)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만나걸이 훌쩍 지나간다. 시암스퀘어의 진짜 매력은 쇼핑몰 반대편 골목에 있는 소규모 부티크들. 아시아 전역의 최신 패션 트렌드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고, 가격도 브랜드 매장보다 저렴해 주머니 가벼운 배낭여행자도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방콕의 트렌드세터들이 몰리는 곳인 만큼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과 카페도 즐비하다. 최신 유행하는 방콕의 별미도 놓치지 말 것.

찾아가는 법 BTS 시암 역에서 시암센터와 파라곤 백화점으로 바로 연결된다. 마분콩은 시암센터 반대 출구로 나온 후 육교를 이용하면 된다. **운영시간** 대부분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10:00~21:00



말레이시아 최대 복합 쇼핑몰

수리아 KLCC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상징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Petronas Twin Towers)' 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센터. 시내 중심인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에 위치해 전 세계 여행자들로 늘 북적인다. 총 6층 규모의 쇼핑센터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웅장한 오페라 홀을 연상케 한다. 중앙 홀을 중심으로 양옆에 패션·이세탄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고, 샤넬, 구찌, 프라다, 미우미우 등 명품 브랜드와 키노쿠니야 서점 등 다양한 종류의 숭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각종 부티크 브랜드와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 중저가 및 로컬 브랜드가 뒤섞여 있고, 각국의 레스토랑과 카페, 리빙, 영화, 레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갖추고 있다. KLCC 공원과 연결돼 쇼핑 중간에 산책하기도 좋다.

주소 Lot No. 241, Level 2, Suria KLCC, Kuala Lumpur **전화** 603-2382-8448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uriaklcc.com.my





가장 대중적인 대형 쇼핑센터 정다광창

상하이, 중국

하늘에서 옥구슬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TV 수신탑 동방명주(东方明珠) 바로 앞에 위치한 쇼핑몰. 상하이 대표 쇼핑

몰이자 랜드마크로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총면적 24만㎡에 이르는 규모에 슈퍼마켓, 영화관, 레스토랑 등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규모가 어마어마해 차칫 길을 잃기 쉬운 것 같지만, 각종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동선이 복잡하지 않다. 자라, 망고, H&M 같은 글로벌 SPA 브랜드가 많아 젊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Lotus Supermarket)이 있어 간단히 선물을 구입하기도 좋다.

주소 中国上海市浦东新区陆家嘴西路1 68号 전화 021-6887-7888
운영시간 07:00-02:00 홈페이지 www.superbrandmall.com



글로벌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랜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도시 구석구석에 대규모 쇼핑몰이 모여 있는 자카르타는 걸어서 쇼핑을 즐기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쇼핑몰은 총 6층에 이스트몰과 웨스트몰로 나뉘어 있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로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브랜드숍은 수백 개에 달할 정도. 먼저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디렉터리 맵을 구해 동선을 짰 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지하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공예품을 포함한 갤러리와 환전을 할 수 있는 은행, 각종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고,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어 선물을 구입하기도 좋다.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를 포함해 루이비통, 구찌, 지미추,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주소 Jln. MH. Thamrin No.1 Jakarta 전화 6221-2358-7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grand-indonesia.com



오사카 쇼핑의 자부심

한큐백화점 오사카,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오사카 쇼핑의 대명사. 인테리어 소품이나 디자이너 의류 등 일본의 로컬 브랜드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무미건조하게 품목별로 층을 구분하는 대신 개성 있는 콘셉트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

러블리한 콘셉트로 꾸민 4층 화장실은 화장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쁘다. 2013년에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9층 이벤트 홀과 지하 1층 식품매장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예쁘고 맛도 좋은 몬슈슈 도지마루(堂島モール)로 유명한 식품매장은 백화점 오픈 시간 전부터 손님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주소 大阪市北区角田町8-7 전화 06-6361-1381 운영시간 일~목요일 10:00~20:00, 금·토요일 10:00~21:00 홈페이지 www.hankyu-dept.co.jp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백화점

클레버 하우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백화점으로 세메노브스카야(Semenovskaya) 거리와 알류츠키야(Aleutskaya)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지하 대형 슈퍼마켓에선 훈제 연어나 캐비어, 러시아 치즈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러시아 식품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따로 마련된 코너에서 수십 종의 보드카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장점. 러시아 로컬 보드카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2~3층에는 패션 브랜드 숍과 어린이용품점이 있고, 최고 층인 5층에는 푸드코트가 있어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기도 좋다.

주소 Semenovskaya Str. 15 Vladivostok 전화 4232-301-205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clover-vl.ru



저우 춘화 Zhou Chunhua
싼야 시 여유발전국 국장

중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 싘야

최적의 휴양 조건을 갖춘 북위 18° 지역에 자리한 싘야. 1년 중 300일 이상이 맑은 이곳은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중국의 대표 해양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5월 열리는 제7회 TPO 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 홍보에 나설 예정. 싘야시의 저우 춘화 국장에게 싘야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싼야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싼야는 하와이, 칸쿤과 같이 18° 선상에 자리한 세계적인 휴양도시입니다. 산호초 보호구역이 밀집해 있고 다양한 종류의 해양 생물이 서식, 중국에서 다이빙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도시이죠. 싘야는 1년 중 300일 이상 맑은 날이 지속되며, 연평균 25.4°C의 따뜻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세계환경기구의 측정에 따르면 싘야의 대기 질량은 세계2위로, '햇볕과 공기를 수출하는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싘야에서는 한, 여, 묘, 회족 등의 소수민족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에 반해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싘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각지에 싘야의 매력을 알리며 국내외 여행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싘야를 찾은 관광객 수가 1,350만명이 넘었고, 관광수익은 약 270억 위안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제7회 TPO 총회 개최도시로서 TP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PO는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관광사업 발전과 협력,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회원 도시들의 관광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싘야시는 5월 말에 있을 제7회 TPO총회 개최도시로 이는 싘야가 세계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TPO기구조직 활동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싘야와 TPO 회원도시들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싼야에서 가볼만한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명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싼야에서 명소가 가장 많은 곳은 하이난성 지역으로, 2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께는 우즈저우 관광지구(蜈支洲岛景区)를 추천하고 싶



습니다. 독특한 별장과 캐빈,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완비돼 있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30여 종의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충만한 대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아룡만열대천당삼림공원(亚龙湾热带天堂森林公园)을 권해드립니다. 도시와 떨어져 있는 천연 삼림욕장으로, 돌계단과 잔도, 누각 등이 품격 있고 생동감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불교문화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께는 남산문화관광지구(南山文化旅游区)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 일대의 푸른 바다와 쪽빛 하늘, 눈부신 해변, 산호초 등의 독특한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풍속을 체험하고 싶다면 빈랑민속마을(槟榔谷景区)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하이난의 문화집중지인 이곳에서는 원시적이고 순박한 하이난의 소수민족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싼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싼야시는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항상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덕분에 ‘국제 하이난 관광위원회’ 발족 후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자원 발굴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 관광지로서 신선함을 유지했고, 소셜 마케팅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로 관광객과의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전문적이고 다각화한 미디어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포메이션 센터와 관광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싘야는 휴양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싼야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반하이관광명품도시(带滨海旅游精品城市)’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오락 휴양 상품과 크루즈 상품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 스포츠, 민속문화 등 특별 관광상품과 하

이탕만(海棠湾)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3S(Sunshine, Sand, Sea)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해양 액티비티를 소개할 것입니다. 둘째, 마케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수 시장을 전면 분석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관광지와 상품을 홍보하고, 영향력 있는 국제 관광 이벤트를 개최해 싘야의 지명도를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표준을 확대 실시, 관광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관광 업계 직원 서비스 훈련과 관광의 디지털화에 집중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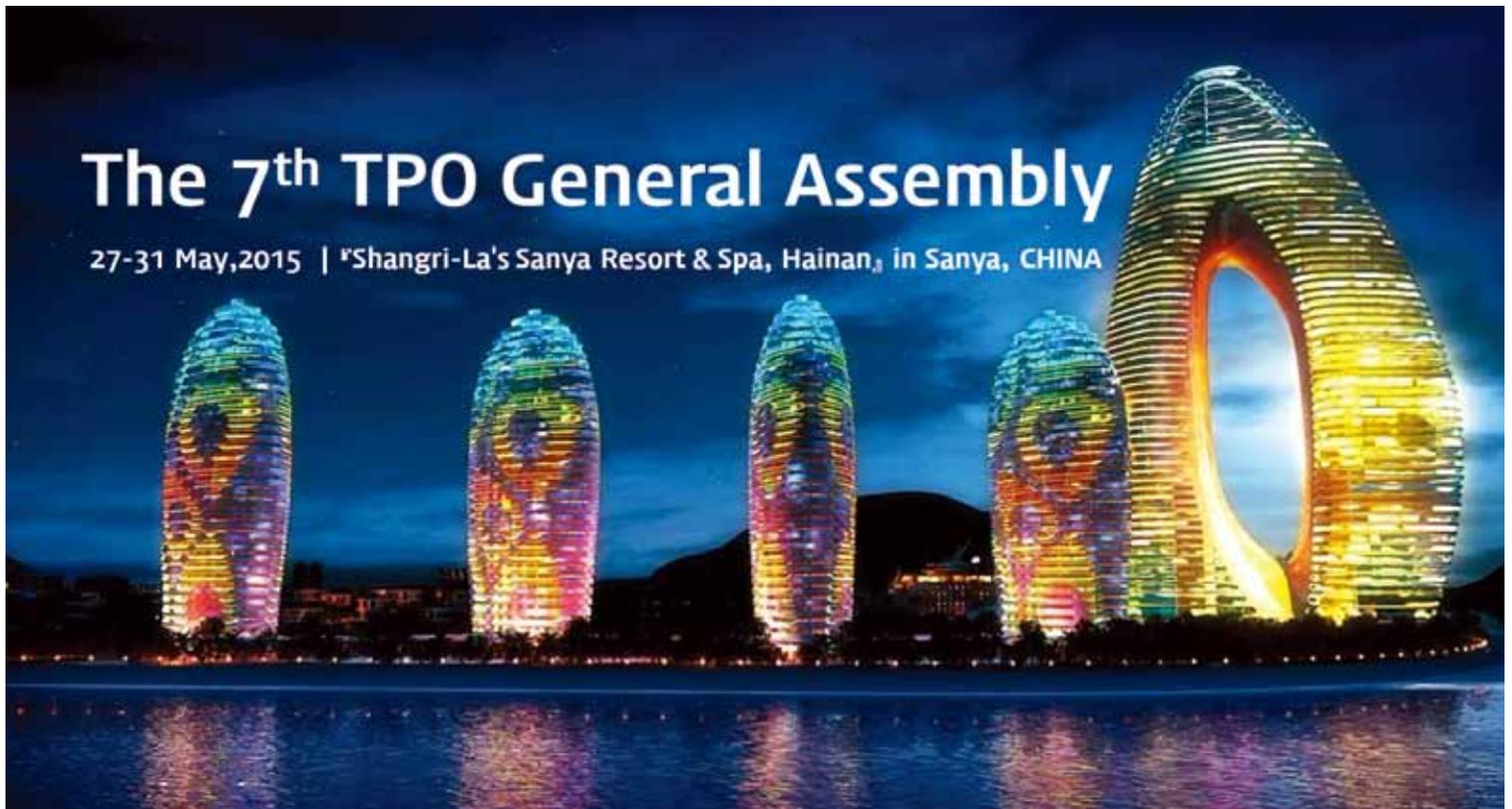
올해 싘야에서 개최될 이벤트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금년 싘야에서 열릴 주요 대형 국제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Volvo 국제 요트 대회 (2월 24일~3월 8일), 2015 국제 복싱 세계 프로 권투 리그전(1~4월), 2015 세계 국제 체스 오픈 대회(10월), 싘야 여자 골프 오픈대회(10월), 하이난섬 국제 싸이클 경주 대회(10월), 하이티엔 페스티벌(海天盛筵) (11월), 티안야하이자오 국제결혼절(天涯海角国际婚庆节) (12월), 2015 국제 윈드서핑 연합 총회(11월 1일~7일). 이 외에도 10개 이상의 국제교류 행사가 싘야에서 열립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세계적인 행사들이 하이난에서 열린다는 것은 하이난의 국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PO 총회 개최도시로서, 회원국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TPO 회원도시로서 각국은 최선을 다해 회원 도시 간의 정보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좀더 창의적인 관광 홍보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과 문화 교류에 관한 관광 상품 개발도 시급합니다. 상호교류는 G2G, G2B, B2B, B2C 등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싼야, 중국

제7회 TPO 총회, 오는 5월 중국 싘야에서 개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TPO 총회가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싘야에서 개최된다. TPO 사무국은 총회 장소 및 일정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최근 싘야 시와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년 임기의 회장 도시와 공동회장 도시 선출, 제7회 TPO 포럼(2016년) 개최지와 제8회 TPO 총회(2017년) 개최지 선정 등 중요 사안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총회와 더불어 운영위원회, TPO 관광광역전(TPO Travel Trade), 공직자 연수회(Tourism School)도 함께 개최된다. TPO 사무국과 싘야 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도시 회원과 민간 회원 등 전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인 만큼 모든 회원도시의 시장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 대한민국

2014년 TPO 하반기 한국지역회의 개최

2014년도 하반기 한국지역회의가 13개 한국 회원도시 대표자 18명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의 센텀호텔에서 12월 18일과 19일에 개최됐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주환명 사무총장의 2014년도 TPO 활동보고와 2015년 TPO 사업계획 설명회가 있었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외부 강사 초청강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송이 연구원이 '관광개발 사업 관련 지역연계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송이 연구원은 지역 정부 간 공동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례별로 장단점을 설명하며 참여 정부의 사업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창조관광'을 주제로 부산 중구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부평 강동아시아장과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보며 부산 관광 개발 현장을 시찰했다.

일본 · 한국

지난해 방일 한국인 수, 6년 만에 방한 일본인 능가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를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228만 434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반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275만 5300명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고, 2007년의

260만 694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일 한국인 수가 방한 일본인 수를 웃돌기는 비교 집계가 가능해진 1985년 이후 세 번째다.

일본이 한국인 여행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직후인 2007, 2008년 각각 방일 한국인 수가 방한 일본인 수를 일시적으로 웃돌았지만, 대체로 방한 일본인 수가 적게는 29만여 명, 많게는 146만여 명 더 많았다. 방일 한국인 수가 방한 일본인 수를 넘어서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일본 정부의 대규모 금융 완화조치로 인해 2013년 이후 엔저 현상이 지속, 일본 내 관광 비용 및 쇼핑 물가가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4월 여객선 침몰사건 등의 영향으로 선박 이용 해외여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후 저비용항공(LCC) 노선 확대와 원화 강세에 힘입어 자유여행자(FIT)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했다.

호찌민, 베트남

호찌민, 201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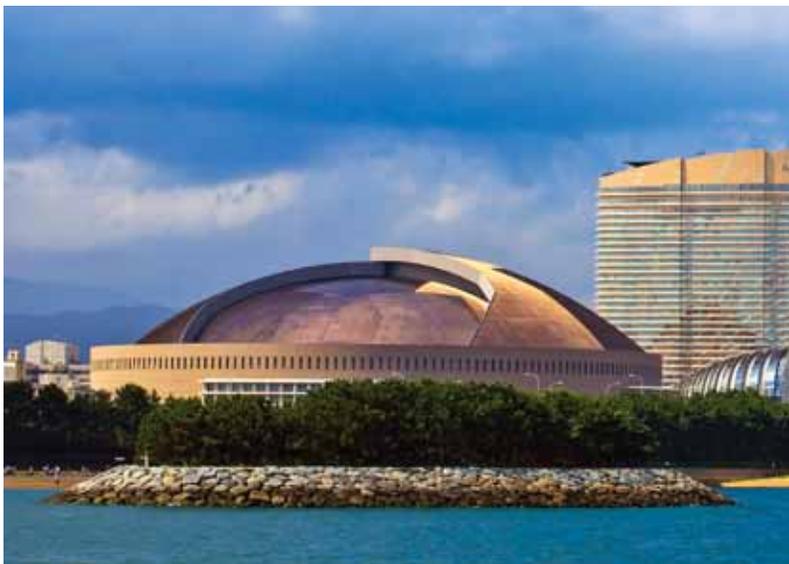
베트남 호찌민 시 관광부가 2014년 호찌민 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390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이며, 관광 수입은 약 37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호찌민 시 관계 당국은 이를 계기로 호찌민 시를 주요 관광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5년 첫 입국 외국인 관광객 환영행사'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했다. 호찌민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호찌민 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채로운 홍보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 후쿠오카

인천~후쿠오카 신규 정기노선 취항

지난 12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와 일본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진에어의 정기노선이 취항을 시작했다. 진에어의 인천~후쿠오카 노선에는 B737-800기가 투입되며, 오후 12시 50분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2시 10분에 후쿠오카에 도착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3시 10분, 일요일은 3시에 후쿠오카를 각각 출발해 오후 4시 40분과 4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매일 운항한다. 이번 진에어의 신규 정기노선 취항으로 TPO 회원도시인 인천과 후쿠오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03 March 2015

Festival Calendar



대만 가오슝 | 2월 21일~3월 15일
가오슝 연등예술제
 장소 가오슝 시(아이허 연안 및 도시 일원)

올해 가오슝 연등회는 '충만한 물길', '노닥이는 물과 빛', '평안기원', '만사인연'이라는 4개 주제와 16개의 특색 있는 테마로 꾸며진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가오슝의 경관과 어울리는 연등을 배치, 아이허(Love River)를 화려하게 빛나는 무대로 만들 예정. 가오슝 연등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O' 쇼 워터 스크린, 화려한 불꽃 효과를 이용한 '가오슝의 눈',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분수,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의 LED 등과 특수효과를 결합, 아이허의 강물 위로 가오슝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낸다.



중국 광저우 | 3월 5일~3월 11일
광부묘회
 장소 광저우

광저우 시는 매년 정월 대보름부터 6일 동안 광부묘회(廣府廟會)를 개최한다. 광부묘회는 광동성 한족의 민속축제로 이번 묘회 역시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다양한 전시회와 민속공연 등이 준비된다. 또한, 광부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도 마련될 예정. 광저우를 찾은 해외 관광객에게 광동의 민속 문화와 음식, 레저 등을 만끽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3월 6일~3월 8일
제11회 자바 재즈 축제
 장소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

2005년 처음 선보인 자바 재즈 페스티벌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즈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제임스 브라운, 시크릿, 산타나, 스티비 원더, 조지 듀크 등 거물급 재즈 아티스트들이 참가, 최고의 라인업으로 세계 재즈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재즈 애호가들은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엔 크리스티나 페리, 바비 맥퍼린, 스나키 퍼피 등을 포함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해 최고의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5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축제가 될 것이다.



일본 시모노세키 | 3월 하순~4월 중순
히노야마 공원 튜립 가든
 장소 시모노세키 불의 산 공원

지난 2009년, 시모노세키 자매도시인 터키 이스탄불 시로부터 튜립을 기증 받아 개원한 튜립 가든.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을 형상화한 터키 튜립원에는 튜립 개화 시기인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가꾼 4만 송이의 튜립과 1만 2000송이의 제비꽃이 만발한다.



대한민국 통영 | 3월 27일~4월 5일
통영국제음악제
 장소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1999년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음악제.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음악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첫회 때는 '윤이상 음악의 밤'이란 이름으로 시작, 2000년과 2001년엔 '통영현대음악제'로 이름을 바꿨고, 2002년, 작곡가와 학자, 통영시의 노력으로 '제1회 통영국제음악제'란 공식 명칭과 함께 대규모 음악 축제로 발돋움했다. 매년 윤이상 선생의 곡을 비롯한 유명 현대음악가들의 곡을 감상할 수 있고, 세계적인 레지던스 작곡가와 아티스트들이 진행하는 공연과 아카데미, 심포지엄 등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 3월 26일 ~ 3월 28일
국제 관광 전시회 '바이칼 투어 2015'
 장소 시베리아 엑스포 센터 'Sibexpocenter'

매년 100개 이상 기업(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과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관광 전시회.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이르쿠츠크 주 정부, 이르쿠츠크 도시관리, 러시아 관광연합회(EU), 동시베리아 상공회의소, 시베리아-바이칼 관광협회, 비즈니스 관광 바이칼 협회의 공식 지원으로 개최된다. 작년 전시회에는 러시아의 부랴트,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치타와 알타이 지역, 그리고 몽골, 중국, 아르메니아에서 온 참가자까지 총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일본 후쿠오카 | 3월 하순~4월 초순
후쿠오카성 벚꽃 축제
 장소 후쿠오카 마이즈루 공원

매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후쿠오카 최고의 벚꽃 명소인 마이즈루 공원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봄이 되면 약 1000그루의 벚꽃이 만개하는 마이즈루 공원은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후쿠오카 성과 헤이안 시대 해외무역의 중심지였던 고우로칸 등이 자리한 곳. 벚꽃 명소이기 이전에 후쿠오카의 역사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000그루의 벚나무를 비추는 조명은 후쿠오카성 벚꽃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결코 놓칠 수 없는 볼거리로 꼽힌다.



04 April 2015

Festival Calendar



중국 쑤저우 | 4월~5월
쑤저우 국제관광축제
장소 쑤저우

'지상의 천국'이라 불리는 쑤저우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199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한 쑤저우 국제관광축제는 도시가 상징하는 '동방수성'을 테마로 삼아 쑤저우의 고유한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축제 기간 동안 채산 공연, 수상 공연, 민속 공연 등이 펼쳐지고, 국내외 수상 관광상품도 전시한다. 또 용배 경기도 열려 흥을 한층 돋울 예정이다. 쑤저우 지방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고 '동방수성'의 아름다운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4월 말
블라디보스토크 무술 축제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종합운동장 '올림피아드'

제1회 블라디보스토크 무술 축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종합운동장 '올림피아드'에서 4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축제로는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특징. 도시인의 신체 건강 강화와 역동적인 도시 창조를 목적으로 주최, 주짓수, 태권도, 삼보, 스모, 유도, 가라테, 복싱, 그레코로만 레슬링, 킥복싱 등 다양한 형태의 무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 무술 축제는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중 하나로 도시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 | 4월 11일 ~ 4월 12일
페낭 세계음악축제
장소 에스플러네이드 오페라 하우스

정상급 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퓨전 및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 해외의 유명 음악가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지역 색이 담긴 세계 곳곳의 음악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초대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 톈진 | 4월 하순~5월 하순경
제7회 천진 계주 이원정(梨園情) 관광문화축제
장소 톈진 계현

계현은 옛날부터 배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곳. 매년 4월 하순이 되면 계북산 지역의 배나무 꽃이 만발해 계현 지역 전체가 배나무 꽃의 바다가 된다. 산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나무의 맑은 향기는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인데, 특히 비장애 좋은 배는 인기 특산품으로 계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원정 관광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은 축제 개막식과 각종 행사를 통해 꽃구경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선율의 민속 음악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또 전통 희곡 공연과 노래 공연, 민간 화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대한민국 대구·경주 | 4월 12일~4월 17일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장소 대구시 EXCO, 경주시 HICO

1997년에 처음 개최된 후 3년마다 열리는 대구·경주 국제회의.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세계물포럼은 2003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 'Water for Our Future'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시 EXCO와 경주시 HICO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 고양시 | 4월 24일~5월 10일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
장소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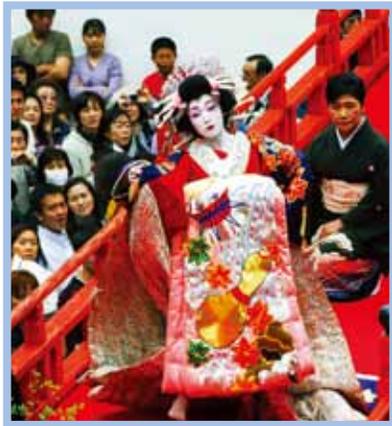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꽃 축제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꽃과 평화, 신한류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국제 화훼 교류관'과 '고양 신한류 합창관' 두 개의 주제 전시관에 세계의 다양한 꽃을 전시해 방문객에게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국제 화훼 교류관'에는 35개국의 대표 화훼류와 세계적인 희귀식물이 전시되고, '고양 신한류 합창관'에서는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신한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비전이 꽃과 멀티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다.

05 May 2015

Festival Calendar

일본 시모노세키 | 5월 2일 ~ 5월 4일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
 장소 시모노세키 시 일대

매년 5월 초, 간몬 해협을 무대로 펼쳐졌던 역사적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 800여 년 전 일본 내전에서 패한 헤이케국 최후의 왕 안토쿠를 기리기 위한 센테이사이, 80여 척의 선박이 펼치는 해상 퍼레이드, 갑옷과 투구를 몸에 걸친 용맹한 무사들의 퍼레이드 '무사행렬' 등, 시모노세키 역사와 얽힌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5월 3일
문화와 꽃 퍼레이드
 장소 투구 팔라완(Tugu Pahlawan)

매년 5월이 되면 수라바야에서는 시 정부가 주관하는 많은 행사가 열린다. 그중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바로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문화와 꽃 퍼레이드'. 수라바야 시 722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퍼레이드는 도시의 상징물인 '투구 팔라완'에서 시작해 시청 지역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시민들은 화려한 장식의 전통의상을 차려입는 것이 보통. 도시 설립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통해 나이와 종교를 불문하고 수라바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 | 5월 3일~5월 4일
하카타 돈타쿠 항구축제
 장소 후쿠오카 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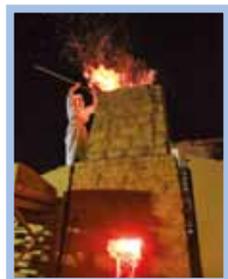
매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후쿠오카 대표 축제. 하카타 돈타쿠 항구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시내의 간선도로

인 메이지 거리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물들이는 '돈타쿠 부대'다. 시내에 30여 개 무대가 설치되어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리고, 꽃과 조명으로 멋을 낸 꽃자동차 퍼레이드도 펼쳐져 돈타쿠 항구축제 기간 후쿠오카는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 찬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5월 13일~6월 7일
제12회 자카르타 패션 및 음식 축제
 장소 영자카르타 말 플라파가딩 라 피아자 광장, 해리스 호텔 & 컨벤션 켈 라파 가딩



자카르타의 대표 축제인 자카르타 패션 및 음악 축제(JFFF)가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매년 5월에 열리는 JFFF는 패션과 음식을 조명한 독특한 컨셉트의 대규모 축제. 유명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패션 런웨이,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 축제, 그리고 센트라 켈라파 가딩에서 열리는 야간 카니발이 펼쳐진다. 개막식 땀 화려한 퍼레이드로, 폐막식 땀 화려한 불꽃놀이로 방문객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울산 | 5월 15일~5월 17일
제11회 울산쇠부리축제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일원, 북구문화예술회관

쇠부리란 철광석이나 토철에 고도의 열을 가해 쇳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재래식 철 생산 과정. 경상도의 방언이기도 하다. 2005년에 첫선을 보인 울산쇠부리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선보인다. 울산 쇳부리축제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고대 아철로 재현'. 전통 야철 기능장이 쇳부리터 아철로에서 토철을 녹여 쇳물을 뽑아내 야철을 만드는 전통 방식의 철 생산과정을 행사장에서 직접 재현한다. 해마다 메인 행사로 마련하는 '두드리 마을-대장간 체험'을 포함, 정크아트, 와이어공예, 금속공예 등 20여 가지 체험 코너, '울산달내쇠부리놀이', '창작마당극·인형극', 공연 및 콘서트 등 오감을 만족시켜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한민국 영주 | 5월 20일~5월 24일
2015영주선비문화축제
 장소 영주시 선비촌 일원

한국 선비의 정신과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선비의 고장, '2015 영주선비문화축제'가 2015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영주에서 4일간 개최된다. 독특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선비문화축제는 지역 잔치의 수준을 벗어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축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영주선비문화축제는 영주의 선비 문화 정신 계승과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선비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페낭 | 5월 30일 ~ 5월 31일
국제 페낭 드래곤 보트 축제
 장소 페낭, 테룩바항 댐

1950년대에 페낭 시에서 처음 시작, 전세계 팀들이 매년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페낭으로 모여드는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축제의 백미인 드래곤 보트 레이스는 오전에 시작,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경쟁의 열기도 뜨거워진다. 드래곤 보트는 규율과 조화,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팀 중심의 스포츠로 일반 보트 레이스보다 강력한 지구력을 요한다. 페낭 사람들에게는 민족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영예로운 스포츠이기도 하다.



중국 다롄 | 5월 말
제26회 다롄 아카시아 축제
 장소 다롄 시 일대

'동방의 아카시아 성'이라고 불리는 다롄은 매년 5월이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 도시 전체가 아카시아 꽃향기로 가득해진다. 1989년에 처음 개최된 다롄 아카시아 축제도 이 시기를 맞아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 중 다롄을 찾는 관광객들은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을 구경하고, 연 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매년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고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준비한 이국적인 공연도 볼만하다.

TPO Members

75 city members, 37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Chengdu Qingyuan Dalian Foshan Guangzhou Ha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Weihai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RUSSIA Vladivostok Irkutsk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 Changwon Chunche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 Iksan Incheon Jeonju Namhae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Yeongju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THAILAND	Bangkok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PHILIPPINES Manila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